

# Workforce Source 진단표

『일은 누가 하는가』 독자 자료 04

## 사용법

앞서 정의한 Capability 하나를 두고, 아래 네 가지 소스 각각에 대해 적합도를 점검합니다.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, 조합도 가능합니다.

## 진단표

| 소스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런 경우에 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우리 조직에 해당 하는가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
| <b>Build</b> (내부 육성)       |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한 핵심 역량이며, 시간을 들여 키울 여력이 있다   |               |    |
| <b>Borrow</b> (외부 전문가·파트너) | 특정 프로젝트 기간에만 필요하거나, 내부에 없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    |               |    |
| <b>Buy</b> (채용)            | 이미 이 역량을 갖춘 사람을 시장에서 구할 수 있고,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|               |    |
| <b>Bot</b> (AI·자동화)        |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이며, 검토 체계를 갖출 수 있다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

## 판단 질문

1. 이 역량은 6개월 안에도 필요하고, 3년 후에도 필요한가? → 그렇다면 Build를 우선 검토
2. 이 역량이 필요한 기간이 짧고 명확히 끝나는가? → Borrow를 우선 검토
3. 시장에 이미 이 역량을 가진 인력이 충분한가? → Buy를 우선 검토
4. 업무가 반복적이고, 결과물을 검토할 사람이 있는가? → Bot을 우선 검토

## 주의

Bot을 선택할 경우, “결과물을 누가 검토하고 책임질 것인가”를 반드시 함께 정해야 합니다. 검토 주체가 없는 자동화는 새로운 위험을 만듭니다.

---

『일은 누가 하는가』 — Judgment Architecture Lab · [judgmentarchitecturelab.com](http://judgmentarchitecturelab.com)